

이불을 껴매면서

박노해

이불흠청을 껴매면서

속옷 빨래를 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의 가슴을 친다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거지에 방청소에 고추장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 달라 물 달라 옷 달라 시켰었다

동료들과 노조일을 하고부터

거만하고 전제적인 기업주의 짓거리가

대접받는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자행되고 있음을 아프게 직시한다

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라고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아내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나는 성실한 모범근로자였었다

노조를 만들면서

저들의 칭찬과 모범표창이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 소리임을,

근로자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보살핌이

허울 좋은 숨사탕임을 똑똑히 깨달았다

편리한 이론과 절대적 권위와 상식으로 포장된

몸서리쳐지는 이윤추구처럼

나 역시 아내를 착취하고

가정의 독재자가 되었었다

투쟁이 깊어 갈수록 실천 속에서

나는 저들의 찌꺼기를 배설해 낸다

노동자는 이윤 낚는 기계가 아닌 것처럼

아내는 나의 몸종이 아니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친구이며 부부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신뢰와 존중과

민주주의에 바탕해야 한다는 것을

잔업 끝내고 돌아올 아내를 기다리며

이불흠청을 껴매면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아픈 각성의 바늘

20160042 구인용

민중가요 그룹 “꽃다지”가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 고등학교 때 우연한 계기로 이 그룹을 알게 된 후로 그들의 노래는 줄곧 나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이따금씩 흘러나오곤 했다. 최근에는 꽃다지가 전집 카세트 테이프를 처분한다기에 후원금에, 장문의 편지까지 보내며 한 세트를 구했다. 개인적으로는 2011년 발매한 정규 4집 〈노래의 꿈〉 앨범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당부”와 타이틀곡 “노래의 꿈”은 한번쯤 들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시대가 변하더라도 변함 없이 위로의 노래를 부르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대중적인 곡이다.

꽃다지의 팬이자 정의당 심상정의 지지자. 유시민 때문에 썰전을 챙겨보는 나는 소위 ‘좌파’의 길을 걷고 있다. 사실 이념적·정책적으로 완전히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자의 편에 서서 이상적인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그들을 응원하고 싶다. (물론 여기서의 ‘이상적인 가치’도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박노해의 시를 논하기 앞서 필자의 정치적 스탠스를 분명히 하는 이유는 그의 글이 읽는 사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매우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본 에세이를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론이 길었다.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을 읽었다. 1984년,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에 햇불처럼 등장한 시집. 심상정과 유시민을 비롯한 수많은 당대의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책으로 알고 있어 기대가 컸다. 근 며칠 간 새벽의 기숙사에서, 지루한 전공수업 시간에, 틈틈이 책을 읽어 나가며 나는 머리 속으로 이 책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많이 아쉬웠다. 객관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분명 노동자의 삶을 직접 체험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진솔하고 구체적인 경험이 담겨있었고, 큰 감동을 주는 글도 제법 있었다. 다만 내가 기대했던 부분이 너무 큰 것이었는지, 예상한 범주를 넘어서는 어떤 깊은 사유를 느낄 수는 없었다. 그의 글이 갖는 특징과 그것이 왜 나에게 한계로 받아들여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중 넘겨보아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의 시들은 제법 길다. (“삼청교육대 I”는 자그마치 100행을 넘는다.) 투쟁, 혁명과 같은 강한 표현들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노동자가 바라본 부조리에 대한 고발이 웅변체로 나타난다. 이것이 일반적인 대중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혹자에게는 지나치게 선동적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할 것 같다.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오히려 진부했다. 이런 류의 글들을 알게 모르게 여러 번 접해왔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용되는 어휘나 표현들이 익숙하여 막 외닿지는 않았다. 시집 내에서만 벌써 이미 몇 차례 본 것 같은 대자뷰마저 들었다. 지난 주에 읽었던 황지우와 비교하자면, 황지우의 글귀 중에는 더러 한 줄만으로도 가슴에 깊이 박히는 문장들이 있었지만, 박노해의 글에선 기억에 남는 문장은 별로 없었다.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며 힘을 실은 문장들을 나열하여 점차 독자를 고양시키는 것이 박노해의 방식이었다. 이전에는 그런 글을 매우 좋아했지만, 요즘 조금 지친 탓인지 이번에 읽을 때는 희나리 마냥 불이 붙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감동시킨 시들은 “천생연분”, “봄” 같이 상대적으로 덜 정치적인, 오히려 보편적인 사랑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었다.

다음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글을 지배하는 감정과 사유가 다소 평면적이라는 것이었다. 거의 모든 시에서 그는 분노한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약자들에게는 무조건적인 동지애와 연대를 느끼지만, 기득권에 대해서는 강한 미움의 감정을 드러낸다. (전문 인용한 “이불을 껴매면서”의 5연만 보아도 ‘저들’에 대한 강한 불신이 담겨있다.) 읽는 동안 많은 회의가 들었다. 과연甲은 항상 옳은가? 아니, 그보다 모든 乙은 옳은가? 박노해의 흑백논리에 가까운 표현들에 동의하기 어려웠다. 이 글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데 큰 역할을 했겠지만, 그들의 ‘투쟁’의 방향성은 웬지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부조리에 대한 고발은 문제를 직시하게끔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부족했다.

이런, 필자가 진보성향임을 그렇게 밝혀 놓고 정작 노동운동가의 시를 신랄하게 비평만 했다. 사실 글을 쓰는 중간에도 멈칫멈칫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내가 오만하게 느껴졌다. 삼정교육대의 잔혹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100줄의 문장으로도 부족했을 것이다. 노동자의 비애가 가져다 주는 것은 정말 깊은 분노, 그 뿐 일지도 모른다. 어두운 군사정부 시절에 사람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進歩의 이유를 제시한 혁명적인 글에 대고 고전은 못 된다는 등, 해결책이 빠졌다는 등. 너무 철없는 소리였는지도 모른다. 사실 진부하다고 표현은 했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정서의 글들이다. 옆에서 누군가가 읊어준다면 간간히 탄성을 뱉으며 고개를 끄덕일 것만 같다. 그럼에도 이렇게 혹평을 했던 까닭은 최근에 든 몇 개의 생각 때문이었다.

요약하자면, ‘감히’ 내가 공감해도 되겠냐는 부분이다. 그 시대와 삶을 경험해보지 않은 풋내기 주제에 글에서 이야기하는 ‘동료’에 스스로를 엮을 자신이 없었다. 부족함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고, 영재학교를 졸업하여 KAIST라는 학교에 입학, (확실하지 않지만)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특혜가 허락된 나는 그들이 규정하는 ‘수혜자’에 가깝다. 그들은 나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으며, 군대가는 박노해의 사촌동생처럼 “찍으러 가는 길” 같은 위로나 응원은 받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따금 적폐로 낙인 찍히는 악몽을 꾸다. 촛불 집회에 나갔다가 지지하던 진보계 인사의 연설에서 웬지 소외감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박노해의 글이 조금 불편했던 것이다. 그의 글은 노동자 동지들에게만 허락되는 것 같아서. 이 사회의 甲들과 자신을 분리하여 선악의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많이 아쉬웠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甲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모든 불효는 자신을 모든 상황에서 사랑해줄 것을 알기에 부모에게 저지르는 갑질이다.

그런 맥락에서 시집에서 주목할 시로 “이불을 껴매면서”를 선정했다. 독보적인 시였다고 생각한다. 시집 전체에서 유일하게 박노해가 甲의 입장에서 쓰는 글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욕하던 존재들에 대해 스스로를 대입하며 반성하는 이 시에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의 정서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기대했던 깊은 통찰이 나타난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신뢰와 존중과 / 민주주의에 바탕해야 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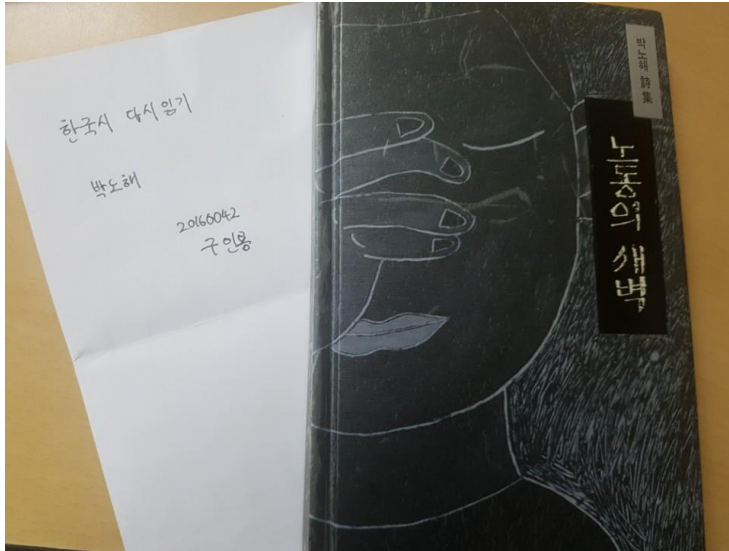
시의 마지막에 나오는 ‘아픈 각성의 바늘이 필요한 시기이다. 어느 때보다도, (아니, 어느 때와 다름없이) 한국 사회는 깊은 갈등을 겪고 있다.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는 태극기를, 누군가는 촛불을 들고 대립했던 겨울이 있었다. 우리 가슴의 투쟁은 누군가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조리에 맞서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한다. 불신과 미움이 사람을 향하지 않기를 바라며, 찢어진 사회가 회복되기를,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신뢰와 존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 (사족) -----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 정치적인 고민이 주를 이루는 듯 하다. 첫 장의 시에 대한 내용이 두 문단 밖에 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에세이를 쓰면서 깨달은 것이 몇 개가 있었다. 사실 진보 진영에 스스로를 귀속시켰던 까닭은 그들이 공유하는 정서가, 말하자면 박노해의 시와 꽃다지의 노래가 좋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막연한 동경, 애착이었음을 고백한다. 이번에 시집을 정독하면서 생각을 많이 정리할 수 있었다. 어떤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아야 하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정치적인 정체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여전히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으며, 진보의 기조가 되는 정신에 공감한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젊음의 치기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굳건한 자신의 철학과 원칙을 쌓으며 증명해보고 싶다.

시의 미학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성장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 결론에 닿기까지의 과정을 담는 것이 ‘감상’의 취지에 더 맞다는 생각에 글을 이대로 제출한다. */



“노동의 새벽”, 박노해, 해냄출판사 (1997)



자랑해야지.